

주말 잠실전 LG에 3승 싹쓸이  
2015년 이후 연승 쾌거 10년 만  
롯데에 반 경기 차로 4위 올라  
오늘부터 SSG와 3연전 돌입  
11년 만의 8연승 대기록 눈앞

10년 만에 7연승을 달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더 멀리 내다본다.



삼성은행은 지난 주말 잠실 3연전에서 1위 LG 트윈스에 시즌 첫 시리즈 3연패를 안겼다.

삼성의 7연승은 2015년 5월29일 잠실 LG전~6월5일 마산 NC 다이노스전 이후 10년 만이다.

7연승과 함께 31승 1무 26패, 승률 0.544를 기록한 4위 삼성은 3위 롯데 자이언츠에 반 경기 차로 따라붙었다. 2위 한화 이글스와는 2.5경기 차, 1위 LG와는 4경기 차다.

프로야구 초반 '3강 구도'를 뒤흔들고 상위권 도약 준비를 마친 삼성은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SSG 랜더스와 3~5일 주중 3연전을 벌인다.

삼성이 3연전 첫날 경기를 잡고 연승을 '8'로 늘리면 2014년 5월 이후 11년 만의 사건이다.

삼성의 최근 7연승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팀 홈런 리그 공동 1위(62개)인데도 7연승 기간에는 단 3개만 담장을 넘기고도 승리해서다. 그만큼 타선 응집력이 강해지고, 마운드가 단단해졌다는 의미다.

삼성의 7연승 기간 팀 평균자책점은 2.43이며, 팀 타율은 0.285도 이 또한 1위다.

이에 맞서는 SSG도 올 시즌 부상 선수가 속출하는 가운데 중위권에서 꾸준히 버티는 저력을 보여 주고 있는 팀이다.

6위 SSG는 5위 kt wiz와 불과 반 경기 차, 4위 삼성과는 한 경기 차다. 이번 홈 3



# 7연승 삼성 “상위권 도약 신고합니다”

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삼성의 포수 강민호와 투수 이호성이 승리를 확정낸 뒤 경례로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전 결과에 따라서 다시 5강 진입을 기대할 수 있다.

올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3승 1무 2패로 삼성이 근소하게 앞섰다. 인천에서 맞붙었던 4월29일~5월1일 3연전에서는 1승 1무 1패로 팽팽하게 맞섰다.

한동안 리그 2위를 질주하다가 최근 10경기에서 3승 1무 6패로 주춤한 3위 롯데는 리그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를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롯데는 나승엽과 손호영 등 주축 타자들이 좀처럼 타격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선발진마저 흔들리고 있다.

당장 뒤에서 줄줄이 따라오는 삼성과 kt, SSG를 따돌리려면 키움전에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이에 맞서는 키움은 지난 주말 두산 베어스와 3연전 가운데 토요일일요일 경기를 연이어 1-0으로 잡고 2연승을

거뒀다.

안방에서 삼성에 3연패를 당한 LG는 창원으로 내려가서 NC와 주중 3연전을 치르고, 꾸준히 2위에서 버티는 데 성공한 한화는 kt를 대전으로 불러들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마이너 경기 첫 수비 김하성 “복귀 이상無”

한국인 빅리거 마형 김하성(29·탬파베이 레이스·사진)이 수술 이후 처음으로 실전에서 수비를 소화했다.

김하성은 2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의 더럼 볼스 애슬레틱 파크에서 열린 더럼 볼스(탬파베이 레이스 산하)와 멤피스 레드버즈(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산하)의 트리플A 경기에 더럼 소속으로 출전했다. 2번 타자 2루수로 배치된 그는 타석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쳐 트리플A 타율 0.125에 머물렀다. 대신 지난해



10월 아개 수술 이후 처음으로 글러브를 끼고 출전해 골드글러브 경쟁자다운 안정적인 수비 솜씨를 보여줬다. 김하성은 그간 지명 타자로만 출전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로 탬파베이 레이스와 계약한 김하성은 빅리그 복귀를 위해 지난해 27일부터 더럼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송구 거리가 짧은 2루수로 수비를 시작한 그는 트리플A 재할 경기에서 다양한 수비 포지션을 시험한 뒤 빅리그로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 휴스턴 오픈 준우승부터 이번 우승까지 7개 대회에서 내리 우승 경쟁을 펼치며 한 번도 8위 밖으로 밀리지 않는 고공행진을 펼쳤다.

우승 상금 400만 달러를 받은 세플러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제치고 상금랭킹 1위(1455만8697달러)에 올랐다. 페덱스컵 랭킹 1위도 독주했다.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시작한 대회에서 9연승을 거둬 역전 불허의 명성도 굳게 다졌다.



## 세플러 시즌 3승·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2연패... 세계 1위답네

통산 16승으로 늘어... 상금·페덱스컵 랭킹도 1위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세플러(미국산전)가 시즌 3승 고지에 올랐다. 세플러는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 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20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했다. 벤 그리핀을 4타 차로 따돌린 세플러는 더C컵 바이런 넬슨, PGA 챔피언십에 이

어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우승도 16승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에 이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2연패도 달성했다.

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다음으로 중요한 대회 가운데 하나로 꼽는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연속

우승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연패를 이룬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24년 만이다.

작년 12월 손바닥을 크게 다쳐 시즌 출발이 다른 선수보다 한 달가량 늦었던 세플러는 올 시즌 12개 대회에서 9번이나 톱 10에 입상하고 3번 우승과 한 차례 준우승 등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 북한 보위부 비밀 요원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여정



신문사 추천도서

한국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세 번의 탈북·세 번의 체포... 中 연길 감옥·北 보위부·안전부 감옥 수기  
희망 잃은 땅을 떠나며 피로 쓴 원고... 폭정 종식 앞당기는 무기 되길

“이 글이 북한에 복수할 유일한 길”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천만 북한 노예들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주와 사이 좋게 지내려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평범한 인텔리 한원재 씨가 남긴 이 글을 통해 북녘 주민들의 절규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응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길 바란다. -태영호(전 북한외교관)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당장 닥칠 것만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배인 저자의 거친 숨결이 행간마다 강렬하게 녹아있다. 목숨과 바꾼, 중국과 북한의 감방에서 절규하며 피로 쓴 이 수기가 노예공화국 북한의 폭정 종식을 앞당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소원한다.

-이영환(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노예 공화국 북조선 탈출